佛陀의 최초 설법지 鹿野苑

불타는 보드가야의 금강보좌에서 대정각을 이루고 7, 7일이 지난 뒤 불법전도를 위해 맨 먼저 사르나트를 찾는다. 당시 사르나트에는 전정각산 아래에서 불타가 수자타여인에게 유미죽을 얻어먹는 것을 보고 실망해 그를 버리고 떠난 5비구가 수도하고 있어 우선 그들부터 제도하기 위함에서였다.

녹야원 입구에서 5비구들이 불타를 마중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다. 그의 얼굴은 옛날과 달리 순금처럼 빛나고 자태는 숭고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와 같이 친구 고타마 싯다르타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불타는 "나를 싯다르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불타가 되었다. 내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대들도 출가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5비구들은 이곳에서 불타의 가르침을 받고 크게 감명하여 불타의 제자가 된 최초의 승려들이다. 다음날에는 바라나시지방의 대지주의 아들인 야사와 그의 친구 54인에게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구하라"고 설교했다고 한다.

이 녹야원은 10만여 평의 넓은 대지로 그 이름과 같이 사슴들이 노니는 동산답게 아름답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곳이어서 불타가 이곳에 정주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내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곳에는 BC 3세기경에 아쇼카왕이 세웠다는 석주, 몇 개의 승원 터, 사리탑지와 다메크탑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작됐다는 붉은 사암 불과 4 5세기 굽타왕조 때 만들었다는 많은 불상이 녹야원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돼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크게 아쉽게 하는 것은 1790년에 바라나시의 장관으로 있었던 쟈갓싱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에 쓰일 벽돌을 이곳에서 실어오게 했는데 이 때 이 벽돌 더미에서 불사리가 들어있는 함을 발견했으나 해독하는 사람이 없어 갠지스강에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맥켄지 대령의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1930년 인도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발굴로 현재와 같은 유적들이 재현되었다고 한다.

이사르나트에서 핵심을 이루는 곳은 녹야원의 서쪽에 자리한 아쇼카석탑지, 법당자리인 불타주석처, 그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었던 스투파유적 등이다. 아쇼카석탑은 부러져 몇 동강이 난 것을 그 위에 건물을 세워 보호하고 있었는데 경이롭게도 37기(氣)나 되는 큰 특대양기명당자리였다.

특히 불타가 4년을 안거하면서 주석했던 법당자리는 38기의 특대양기명당으로 서동동남향을 했는데 이 녹야원에서 가장 큰 길지였으며 법당 터 남쪽에 있는 원형의 불타 사리탑지도 준특대화기명당(準特大和氣明堂)으로 이 녹야원 일대가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명당들의 밀집처였다.

녹야원 전체 지상은 룸비니동산이나 보드가야의 금강보좌 터처럼 편평한 땅으로 통상의 풍수원리로 쉽게 명당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상이 아니어서 심안이 열린 달인이 아니고는 감정이 어려운 땅이었다. 그럼에도 위 모든 유적들이 큰 명당의 핵자리에 정확히 조성된 것을 보면 불타와 그의 제자들이 풍수원리에 도통한 선사들이었음을 입증하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든 조화옹은 이와 같은 큰 명당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초기 불교가 인도에서 큰 성운을 누리게 했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기 409년에 이곳을 방문한 법현은 4개의 수투파와 2개의 승원이 있었다고 기술했으며 서기 637년에 심방한 현장은 8개 부문으로 구획된 아름다운 가람에는 스님 1,500명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니 이곳이 불타 후 1천년이 넘게 얼마나 큰 번영을 누린 절터였던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또한 이 터 전안에 있는 다메크탑자리와 불영탑 자리도 좋은 명당 터였으며 인근에 현존하고 있는 자이나 사원 터도 명당에 건립되었으니 이 일대는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복지임이 확실하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